

일반 논문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

: 조선예술영화 '보증'에 삽입된 김일성 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중심으로

김규리 (이화여자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선예술영화 '보증'에 삽입된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통해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9명의 북한이탈주민들 중, 1명(장마당세대)을 제외한 8명은 이 시를 80%이상 암기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 9명에게 당시 이 시를 읊으면서 '어머니 당'에 진심으로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1990년대 장마당 세대인 G씨와 H씨를 제외한 연구대상자 7명은 "당시에는 이 시를 읊으면서 당에 진심으로 충성하였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장마당세대인 G씨와 H씨는 연구자의 같은 질문에 "어머니 당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다. 북한은 1980~90년대 당시 북한사회에서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조선예술영화 '보증'이나 이 영화에 삽입된 시 〈어머니〉나 〈용서하시라〉를 통해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도 재활용하면서 체제결속을 유도하지만 현재는 그 효용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주제어: 보증, 김철,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 어머니 당, 세뇌, 효과,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I. 서론

본 논문은 조선예술영화 ‘보중’에 삽입된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영화 ‘보중’에 삽입된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바탕으로 한 이유는 연구자가 9명의 북한이탈주민 연구대상자에게 “북한의 ‘어머니 당’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나 시, 드라마 등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1명(장마당세대 G씨)을 제외한 8명이 영화 ‘보중’과 김철의 시 〈어머니〉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을 ‘출신성분’¹⁾이라는 성분분류에 따라 주민 계층을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놓고 이 출신성분에 따라 포용과 배제, 감시와 통제, 평가와 보상을 해왔다. 주민성분 조사사업 및 주민통제 조치로 1958년부터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으로 불순분자 색출 처단 및 산간벽지에 강제이주를 시켰고, 1967년 4월부터 1970년 6월 사이에는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으로 전 주민을 핵심계층(핵심군중), 중요계층(기본군중) 적대계층(복잡군중)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하였다.²⁾

출신성분을 바탕으로 엄격한 정치적 위계구조와 성분 및 계급계층 구분과 차별적 대우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연쇄적으로 재생산되고

1) 출신성분은 혁명가, 노동자, 고농, 빈농, 중농, 사무원, 종교인, 월남자, 지주 등의 신분이 사용되며 이 중 어느 한 성분이 부모의 성분으로서 본인의 출신성분을 규정한다. 김진철, 「북한의 사회불평등 구조화 요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23쪽.

2) 『2009 북한개요』(서울: 통일연구원, 2009), 332쪽.

심화되었다. 성분에 따라 의식주나 생필품 등 국가 배급이 차등 지급되었고, 거주지 및 이동이 제한되었다. 대학 진학, 군입대, 직장 배치, 입당 시 특혜 또는 불이익이 적용되어 수직적인 계층 이동 가능성도 제약하였다.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에 의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정책은 강력한 사회통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한편, 국가 건설 및 유지에서 특정 계층을 배제하기에 이른다.³⁾

그런데 이러한 북한 사회에서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문화예술 부분에서 대대적인 변혁을 일으킨 가운데 '조선예술영화'에서 적대계층이 영화의 '소재'와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1987년에 방영된 조선예술영화 '보증'이다. 이는 북한 문화예술 부분에서 커다란 사변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에서는 극심했던 성분차별의 실화를 그리고 있다. 남한에 가족을 둔 월남자 가족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자산계급 출신인 연구기사가 노동 현장에서 겪는 불평등한 차별의 현실을 반영했다.

영화 보증이 방영되고 난 후, 북한에서는 TV, 라디오, 신문잡지 할 것 없이 모든 선전매체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1988년 『조선중앙년감』에서는 '보증'에 대해 "영화는 사회정치생활경위와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관하게 본인의 현재 사상과 행동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보증하고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우리 인민이 안기여사는 한없이 은혜롭고 위대한 어머니 품이라는 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였다."라고 극찬했다.⁴⁾ 조선노동당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록 및 선전하는 『조선로동당력사2』에는 "예술영화 '보증'을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대작으로 창작하여 당간부양성기관

3) 안지영·김화순, 「배제와 포용-북한영화 및 드라마를 통해 본 '복잡군중'정책」 『한민족문화연구』 제72권 72호 (2020), 95쪽.

4) 『조선중앙년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209쪽.

들에게 교재로 리용하도록 하였다.”라고 수록하고 있다.⁵⁾

이처럼 북한 예술영화 부분에서 당의 사상을 온전히 전파하고 당을 찬양하는 교양적 가치로서의 커다란 영향력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영화 ‘보중’은 그 명성에 걸맞게 이 영화에 대한 연구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삽입되어 영화의 중요한 요소 마다에서 극적 극대화를 일으켜주는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용서하시라〉와 영화 2부의 엔딩장면에 삽입되어 감동의 하이라이트를 선사하는 시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가 영화 ‘보중’에 삽입되었다는 소개 조차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에 대한 선행연구는 ‘현역 북한 최고의 시인(김일성賞계관시인) 김철·오영재’라는 제목으로 〈열정과 카리스마의 시인 김철〉의 개인사(김철의 출생부터 출당·철직, 그리고 복당 등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시인의 일대기)를 다룬 전영선의 연구가 유일하다.⁶⁾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북한당국이 인정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억하는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가 영화 ‘보중’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북한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면서 북한주민들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 당’으로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세웠다는 판단에 따라 이 시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그 한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억하는 시 〈어머니〉와 〈용

5) 『조선로동당력사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116쪽.

6) 전영선, 「현역 북한 최고의 시인(김일성상계관시인)-김철,오영재」 『북한』, 2002년 3월호(통권제363호), 136~145쪽.

서하시라)를 통해 이 시가 북한사회에 어떻게, 얼마나 전파되었는지, 북한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선전매체로써 북한 주민들을 '어머니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 세우는 체제결속의 역할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보증'과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에 대해 당시 북한의 분위기나 시가 갖고 있는 인지도, 상징성, 영향력, 세뇌 효과 등을 보다 폭넓게 기억하고 증언할 수 있는 1980년 이전 출생자 우선의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시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를 알아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출생의 장마당세대도 인터뷰하여 현재 김정은 시기에 이 시를 주민 교양적 사료로써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에도 계속해서 북한주민들이 이 시를 통해 '어머니 당'을 진심으로 흠모하고 따르는지, 시가 나와서 북한사회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킨 1980~90년대보다 어떤 의미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볼 것이다.

참고로 본고에서는 북한 원전을 인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당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생동감을 주기 위해 북한식의 한글 맞춤법(두음법칙, 띄어쓰기 및 철자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II. 영화 '보증'과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

우선 조선예술영화 '보증'은 1986년 남흥화학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재직했던 박봉주 전 총리의 실화를 다룬 영화이다.⁷⁾ 영화는 월남자 가족 출신의 공장 노동자 허진성과 부르주아 출신의 화학기사 원석

해의 출신성분을 이유로 차별하고 배척하는 일부 당간부들의 편협성을 공장 당비서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어머니 당’의 이름으로 노동자 허진성의 입당 보증인이 되어주는 감화·감동을 목적으로 조선로동당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과도 같다는 내용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⁸⁾

북한당국은 영화에 대해 “영화는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준 특출한 성과작으로, 우리 당 군중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인한 혁명적 작품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상을 수여받았다.”라고 극찬했다.⁹⁾ 결국 영화는 복잡한 각계각층 군중의 배경이나 과오도 감싸안고 차별하지 않은 조선로동당을 따뜻한 어머니 품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어머니 당’에 감사하며 충성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영화에 삽입된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 시라〉는 어머니는 자식의 허물을 비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사랑으로 용서하듯이 당도 어머니와 같이 주민들을 출신성분에 따라 구분하고 배척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보듬어준다는 강력한 메시지에 영화의 요소마다에 삽입되어 극적 극대화를 일으켜주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시 〈어머니〉는 “내 이제는/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어느덧 귀밀머

7) 조선예술영화 ‘보증’은 1983년부터 10년간 남흥화학 당책임비서로 재직했던 박봉주 내각총리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총리가 남흥화학연합기업소 당비서로 재직하던 당시 적대계층에 속하는 출신성분이 안 좋은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을 보살핀 실제 사실을 다뤘으며, 북한에서는 당간부의 전형적인 모범사례로 선전하고 있다. 「北에선 남흥화학 공장출신들이 출세한다.」 『연합뉴스』 (온라인), 2013년 6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30620201100014>>.

8) 「조선예술영화 ‘보증’ 제1, 2부」 『유튜브』 (온라인), 2020년 8월 27일 <<https://www.youtube.com/watch?v=E1NY1xNNL7>>.

9) 『조선중앙년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209쪽.

리 희여졌건만/지금도 아이적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를 시작으로 한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 가지 소원을 다 아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애로운 어머니 품과도 같은 조선로동당이며 당은 낳아준 어머니의 품 이상으로 육체적 생명뿐만이 아닌 사회정치적 생명까지도 책임져주는 사려 깊고 현명한 어머니의 품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며/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로 마무리하고 있다.¹⁰⁾

북한당국이 이 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당국의 시에 대한 문학작품 분석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서정시 〈어머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되었다. 총적으로 이 시의 종자는 〈어머니당이 없이는 나는 못산다〉는 것을 종자로 하고 있다. 이 서정시는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주는 어머니이며 우리 인민은 이 어머니당에 모든 운명을 맡기고 모든 생명을 다 바쳐 영원히 받들고 따라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다.¹¹⁾

또 시 〈용서하시라〉는 “무명천으로 통바지 해주었다고/투정질하며 어머니의 속을 태우던 이 아들을 어머니시여 용서하시라/화학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고/대수공식도 외우지 않아/선생님을 애먹이던 이 제자를 선생님이시여 용서하시라/그러나 용서치 마시라 조국이여/진격의 길에서

10) 김철시집, 『어머니』 (평양: 문예출판사, 1989), 32~36쪽.

11) 『문학작품분석』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2012), 100쪽.

내 주저하며/순간이나마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면/하여 나의 가슴을 겨누는 적의 탄알이/전우의 가슴을 뚫게 된다면/절대로 용서치 마시라”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²⁾

시 〈용서하시라〉는 시인 김철이 조국해방전쟁시기 화선에서 쓴 작품으로 이때 시의 제목은 〈돌격을 앞두고〉였다. 하지만 이 시의 제목인 〈용서하시라〉는 김정일이 직접 수정한 것이다. 김철은 자신의 수기에서 “그리고 잊지 말고 강조해야 할 것은 〈용서하시라〉 시의 제목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달아주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서정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아주 잘 썼다고, 세계에는 당도 많고 시인도 많지만 그 어느 나라에도 김철동무처럼 당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다 맡아주는 어머니로 절절히 노래한 시인은 없다고, 시 〈용서하시라〉도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거듭거듭 치하의 말씀을 안겨주시었다.”라고 회고했다.¹³⁾

김일성과 김정일이 영화 ‘보증’이나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¹⁴⁾의

12) 『김철작품집(상)』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6쪽.

13) 『민주조선』, 2009년.

14) 시인 김철은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 여성과 문학적 결합의 결혼을 하였으나, 이후 러시아 혼혈인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 중앙작가동맹에서 “본처와 이혼하면 노동당에서 제명한다.”라는 조건을 내놓자 그는 서슴없이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내놓았다. (「사망한 北 최고시인 김철의 ‘끝내 이뤄진 사랑」 『DAILYNK』 (온라인), 2008년 4월 4일, <<https://www.dailynk.com/%EC%82%A0%EB%A7%9D%ED%95%9C-%E5%8C%97-%EC%B5%9C%EA%B3%A0%EC%8B%9C%EC%9D%B8-%EA%B9%80%EC%B2%A0%EC%9D%98-%EB%81%9D%EB%82%B4-%EC%9D%B4/>>.) ‘조선로동당원증’을 반납하고 지방으로 추방(혁명화)되어 내려갔다. 함경남도 허천광산에서 노동자로 혁명화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김철은 계속해서 당을 흠모하고 평양을 그리워하는 문필활동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찬양시를 써냈으며, 마침내 김정일의 방침에 따라 다시 평양으로 소환되었다. 김정일은 김철에 대해 “김철동무와 같은 훌륭한 시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 동무는 오래동안 당밖에서 생활하였으나 변함없이 당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로동을 통하여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얼마나 극찬했는지는 시인 김철이 2005년 1월에 서정시 〈어머니〉의 창작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쓴 자서전적 수기 〈시와 인생〉의 한 부분에 잘 나와 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빛내어주시고 끝까지 보호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

자신을 단련하면서도 높은 창작적열정으로 끊임없이 문필활동을 벌려 좋은 시 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비록 지난날에는 엄중한 과오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 동무처럼 오직 수령님과 당만 믿고 따르겠다는 신념을 안고 충실하게 일한다면 우리 당은 그를 다시 대오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동무를 정당원으로 복당시키고 지난 기간의 당생활년한도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민주조선』 2009년 10월 8일.) 이러한 김정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드디어 1981년 2월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국가 명절을 계기로 서정시 〈어머니〉는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세상에 발표되었다. 폭풍 같은 반향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다. 시인에게 수십, 수백 통의 편지가 날아들고 집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찾아왔다. 2014년 6월 9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서정시 〈어머니〉는 작가적 생명의 보호자, 보증인이 되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이 땅엔 버림받은 운명이란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한 시인이 눈물속에 인생체험과 전인민적 감정을 담아 삶과 운명의 품에 대한 시를 쓴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1993년 환갑을 맞은 시인은 4개의 시집 〈갈매기〉, 〈철의도시〉, 〈어머니〉, 〈끝나지 않은 담화〉를 세상에 내 놓았고 김일성의 탄생 80돌을 맞아 《김일성상》을 수여받았다. (윤성옥, 「위대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 『문화어학습』 제3호, (1993), 3쪽.)

이후 김철은 2000년 11월에는 2차 이산가족상봉으로 평양을 방문한 남한의 형 김환을 만나 6·25전쟁 때 헤어진 가족과의 상봉도 이루었다. 2004년 12월 16일에는 김정일이 직접 보낸 생일상을 받기도 하였으며 2006년 10월에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한 단일작가 모임인 ‘6·15 민족문화인협회’ 결성식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북한당국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김정일은 2007년 김철이 불치의 병으로 앓아누웠을 때는 “병을 빨리 고치여 보람찬 우리 시대를 더욱 빛내여 갑시다.”라는 친필 서한을 보내주었고, 외국에 보내면서까지 치료를 해주었으며, 2008년 4월 2일 김철이 사망하였을 때는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시인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김정일의 각별한 사랑을 받다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했다. 내놓았다. (「사망한 北 최고시인 김철의 ‘끝내 이뤄진 사랑」 『DAILYNK』 (온라인), 2008년 4월 4일.)

서는 어버이수령님(김일성)을 몸가까이 모신 영광의 자리에 나도 불러주시고 송시를 랑송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까지 베푸시었다. 지금도 나의 귀전에는 가까이 와서 읊으라 하시며 나를 자신 곁에 불러주시고 시랑송을 다 들어주시고는 고맙다고, 감명이 깊다고 하시며 그 시를 타 자쳐서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우신 음성이 울리고 있다.”라고 회고했다.¹⁵⁾

또한 북한 원전 사료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예술영화 ‘보증’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거듭 치하하시면서 영화에서 나오는 시 〈용서하시라〉가 아주 좋다고, 그 시는 매우 훌륭한 시라고 말씀하시었다.¹⁶⁾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신문에 조용히 실렸다가 예술영화 ‘보증’의 한 장면에 리용된 시 〈용서하시라〉를 보시고 아주 좋은 시라고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온 나라에 더 세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여주시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⁷⁾

계속해서 시는 북한에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후대 세대들에게 명작으로 추앙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영화 ‘보증’을 비롯한 여러 영화들의 창작경험을 놓고보아도 시를 리용한 영화적 형상이 가지는 감화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화들이 창작되어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어도 자기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작품이 제시한 사상주체적 내용의 심오성과 현실반영의 대담성과 예리성, 인상적이며 개성적인 인물성격 형상과 함께 사람들 속에서 즐겨 불리워지고 있는 명시들을 잘 결부하여 형상의 철학성을 높여준 것과 적지 않게 관련

15) 본사기자, 「영원한 어머니」 『천리마』 제6호 (2008), 4쪽.

16) 어은심, 「조국수호정신이 충만된 시 〈용서하시라〉의 언어형상에 대하여」 『문화어학습』 제1호 (2007), 1쪽.

17) 방철림, 「〈애국의 열정을 북돋아주는 투쟁의 기치〉 서정시 〈용서하시라〉를 두고」 『조선예술』 제3호 (2007), 2쪽.

되어있다. 시는 영화의 적절한 계기들에서 울려나옴으로써 인물들의 성격을 돋우고 작품의 주제사상적 의의를 높여주는데 이바지하였다. 영화에서는 어제든 오늘도 인민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선군조국의 한 성원으로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영원히 불리워질 명시 〈용서하시라〉, 〈어머니〉를 잘 리용하였다.”¹⁸⁾, “서정시 〈어머니〉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고마움과 당에 끝없이 충직할 맹세를 노래한 시대의 명작이다.”라는 것이다.¹⁹⁾

결과적으로 조선예술영화 ‘보중’은 북한 예술작품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대중을 당에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하는데 사상교양의 나팔수 역할로서의 1등 공신한 명작으로 추앙받은 작품이다.

영화에 삽입된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는 영화와 함께 북한의 학교, 공장·기업소, 인민반 할 것 없이 전국에 대대적으로 보급되어 북한주민들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 당’으로 철석같이 신뢰하고 세뇌되는데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Ⅲ.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북한의 ‘어머니 당’을 이해하려면 우선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대한 개념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이와 연

18) 최철진, 「〈평론〉 영화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데서 시의 역할」 『조선예술』 제1호 (2007), 1~3쪽.

19) 『국어문학학습참고자료집』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7), 1쪽.

관된 ‘어머니 당’에 대해서 알아본다.

첫째, ‘사회주의 대가정’은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에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국가의 이미지가 가정의 이미지로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국가’라는 2차 집단을 ‘가정’이라는 1차 집단에 접목함으로써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이 각 가정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부모보다 더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국가의 가정화’를 통해 수령의 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수령에 대한 대중의 충성과 효성을 강조한다.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한 대가정론은 등장 이후 ‘붉은 대가정’, ‘혁명적 대가정’, ‘공산주의적 대가정’ 등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여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영향력 있는 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²⁰⁾

북한은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 구성원인 북한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아버지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적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정치학습과 생활총화 등 정치사상 교육을 통해 각인시키고 있으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시장 활동

20)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1), 432~433쪽.

등으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가치관은 점차 변화되고 있다. 경제난 이후 기존의 출신성분과 계급적 토대에 기초해서 작동하던 사회구조가 돈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권력이 시장과 결탁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뇌물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이 일상화되는 추세 속에 그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온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느슨해지고 있다.²¹⁾

혁명화된 대가정은 사회 전체가 김일성주의화 된 가정이다. 이러한 대가정론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다. 대가정에서 아버지는 수령이고 어머니는 당이고 인민대중은 자식이다. 이 삼자 관계가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둘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란 사회정치적 존재인 개개인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하면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 앞에서 행한 "주체사상교양에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삼위일체)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로 생명의 중심이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 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이다. '인민대중'(노동자, 농민, 인텔리)은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담당자이다. 따라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가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나누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육체적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전제에서 출발

21) 『2020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0), 19~20쪽.

한다. 집단주의 생명관에 기초하여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나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룰 경우,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덕의무와 관련해서는 “혁명하는 사람들이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끝까지 따르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근본요구이며 마땅한 도리이고 더없는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²²⁾

셋째,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서 당을 어머니에 비유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한 것이다.

김정일은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자기의 령도적지위를 끊임없이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왔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어머니당이 되어야지 이뻐어머니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²³⁾

이에 천재적 시인 김철은 북한당국의 의도를 빠르게 캐치하여 ‘조선로동당’을 낳아준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선 정치적 생명을 보장해주고 보살피는 ‘어머니 당’으로 노래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출신성분 정책이나 계급 간의 갈등을 철저히 완화시켜 모든 국민들이 오직 당만 따르고 충성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선동가로서의 역할을 해낸 것이다.

김철이 남긴 수기를 보면 시인 김철이 당시 당의 의도를 얼마나 잘 받

22)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1), 406~407쪽.

23) 「우리 당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로동신문』 2014년 6월 9일.

영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김철은 수기에서 서정시 〈어머니〉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해 “서정시 〈어머니〉는 우리 시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입니다. 당은 어머니! 어머니당은 김정일동지! 나는 우리 인민의 말을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어머니당의 품에 맡긴 운명에는 값높은 삶과 생명의 환희만 있다는 것이 나의 인생 총화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²⁴⁾

결국 시인 김철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선전하고 북한주민들이 당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도록 세뇌시키는 데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 즉 한 편의 시, 한 편의 영화가 주민들의 사상체계를 어떻게 세뇌시키며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아래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V.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기억하는 조선예술영화 '보충'에 삽입된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통해 북한당국이 이 시를 북한 전역에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머니 당'에 대한 충성심을 극대화시킨 세뇌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연구대상자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참고로 인터뷰 내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암송'이라고 언급하는 단어의 맥락은 '암기'를 뜻하는 것임을 밝힌다.

²⁴⁾ 본사기자, 「영원한 어머니」 『천리마』 제6호 (2008).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구분	성명	성별	생년	고향	북한탈출년도	직업 및 학업
1	림일	남	1968년	평양	2000년	작가&칼럼리스트
2	연구대상자 A	남	1968년	평양	2020년	전기 엔지니어
3	연구대상자 B	여	1966년	양강도	2014년	전 통일교육강사
4	연구대상자 C	여	1971년	양강도	2010년	상담 코치
5	연구대상자 D	여	1975년	양강도	2003년	대학원생
6	연구대상자 E	여	1979년	함경북도	2006년	국립통일교육위원
7	연구대상자 F	여	1981년	함경남도	2008년	논문준비생
8	연구대상자 G	남	1991년	함경북도	2014년	대학생(3학년)
9	연구대상자 H	여	1992년	양강도	2013년	대학생(4학년)

평양에서 태어나 탈북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을 평양에서만 살았다는 림일 작가&칼럼리스트는 김철과 그의 시 〈어머니〉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 시는 내가 14살인가 15살인가 중학교 금방 들어가고 나서,, 1984년엔가 1985년엔가 나왔어요. 이 시가 금방 나왔을 때는 나라 전체에서 대단했죠. 뭐 북한의 티비, 라디오, 신문, 잡지, 방송할 것 없이 모든 선전매체에는 전부 다 실렸고 대대적으로 방송했으니까.. 내 기억으로는 심지어 우리 〈소년신문〉인가 거기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교에서 이거 외우라고 해서 얼마나 외웠는지 난 지금도 80%이상 암송하고 있어요. 그때 김정일이 이 시를 쓴 김철이한테 김일성상인가 얹튼 북한의 최고 영예, 최고 명예 다 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고급 차, 고급 집 뭐 더 말할 것도 없고...북한에서 〈어머니〉 시 모르면 이거야 말로 진짜 간첩인거죠.

연구대상자 A씨(이하 A씨)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의 엔지니어이다.

〈어머니〉 시는 김철이가 지방에 혁명화 내려가서 쓴 거잖아요? 이 〈어머니〉 시를 너무 잘 써가지고 김정일의 방침 받고 김철이가 다시 평양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머니〉 시는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 암송하게 했으니까 그거 암송 못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영화 ‘보중’에도 들어가고, 〈용서하시라〉 시도 영화 ‘보중’에서 나온 이후로 나라에서 전 국민이 암송하게 해서 우리 대학생 때 엄청 외우고 다녔죠. [...] 이 시 모르는 사람은 북한사람이 아니죠.

연구대상자 B(이하 B씨)의 경우에는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에 대해서 90%이상을 암송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뷰 도중에 〈용서하시라〉 시를 읊었는데 한 단어(화학숙제-)수학숙제)를 제외한 전 문장을 완벽하게 읊었다.

북한에서 〈어머니〉 시, 〈용서하시라〉 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요즘 젊은 아이들은 몰라도 우리 때 사람들은 뭐 학교나 직장에서 달달 외우게 했으니까 80% 이상은 다 기억할걸요? 이거 모르면 간첩 아닌가요?

연구대상자 C(이하 C씨)는 누구보다도 〈어머니〉 시나 〈용서하시라〉 시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리얼한 기억을 할 수 있는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때 나라에서 (영화) ‘보중’이랑 〈어머니〉, 〈용서하시라〉 시는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으니까,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양에서는 이 시들 원문 통달해서 당비서에게 검열(검사) 받고 했기 때문에 내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한다”라고 증언하였다.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는 80년대 말인가 영화 ‘보증’에서 나와서 봄이 일어서, 뭐 〈어머니〉 시는 그 전부터 봄이 일었고... 전 국민이 직장, 여맹, 청년동맹, 당조직, 인민반 할 것 없이 모두 외우고 암송했고,, 이걸 가지고 강연회, 발표회 엄청나게 했죠. 수요일이면 수요일 학습회, 목요일이면 목요일 강연회, 발표회 이런 하면서. 원문 통달하고, 각 조직 책임자한테 검사받아서 통과돼야 했고, 이거는 뭐 내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기억하는 거니까. 아무튼 평양에서는 대단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근데,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고난의 행군 시작되면서 아사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하니까 그때 김정일이 북한에서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이 〈어머니〉 사랑 〈용서하시라〉 시 같은 유명한 특정 주제를 가지고 당에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킨다고 하면서 〈용서하시라〉 시를 가지고 다시 노래로 다시 만들었어요. 조국이 없이는 안 된다, 당이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조국과 당이 곧 어머니이고 우리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고 자식들이다, 자식이 부모를 배반할 수 없듯이 자식들이 나라를 지키고 수령-당-대중의 일심동체, 일심단결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걸로요. 이때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 노래는 ‘인민군협주단’에서 그 군복 입은 중저음에 성악목소리 내는 남자가 독창으로 불렀어요. 아마 이 노래 제목도 〈용서하시라〉일 거예요.

C씨의 증언대로 3절로 구성된 노래 〈용서하시라〉는 현재 유튜브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작사는 김철, 작곡은 설명순이다.²⁵⁾

연구대상자 D(이하 D씨)의 경우에는 영화 ‘보증’과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 어머니와 당을 비교하는 것이 참 내 어머니가 아깝다.”라고 증언하였다.

[...] 뭐 〈어머니〉 시나 〈용서하시라〉 시는 그 당시에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래수첩’다 갖고 다녔잖아요? 맨 첫 장에는 대부분이 이 〈어머니〉 사랑 〈용서하시라〉 시를 적었죠. 〈용서하시라〉 시는 학교 졸업하는 학

25) 「조선가요, 용서하시라」 『유튜브』 (온라인), 2022년 3월 17일, <<https://www.youtube.com/watch?v=nmQ9yYbWUvo>>.

생들 대상으로 특히 군대 나가는 학생들한테 엄청 더 열거였죠. 실제로 여학생들은 보통 군대를 안 나가는데 제 사촌 여동생은 84년생인데 그때 그 용서하시라 시를 읊으면서 군대 나가겠다고 난리를 쳐서 자원입대했어요. 고사 포부대에 가서 7년 군 복무했는데, 훈련 도중에 사고로 머리가 깨져서 집에 와서 한동안 치료받고 다시 군부대로 복귀했어요. 어머니당을 위해서 산다면서 [...] 바보 같은 거죠.

연구대상자 E(이하 E씨)의 경우에도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매 구절구절,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용서하시라〉시랑 〈어머니〉시는 우리 맨날 작은 수첩에 적어가지고 막 외우면서 다녔어요. 영화 '보종'이나 이런 것은 북한 영화예술 정책 때문에 그런거고, 나는 영화보다도 〈어머니〉시랑 〈용서하시라〉시가 더 기억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서 계속 외우라고 해서 다 달달 외우고 다녔잖아요? 그 〈용서하시라〉시는 〈어머니〉시보다 좀 짧으니까 고등중학교 때 인가 시험에도 나왔어요. 시 전문 다 쓰는 거. 우리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남자애들 군대 갈 때 여학생들은 코바늘로 수첩케이스 다 떠가지고 수첩 넣어 주잖아요. 당중이랑 비슷하게 생긴 빨간 수첩. 그 수첩 첫 페이지에다가 〈용서하시라〉시 적어주고,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는 〈용서하시라〉가 하나의 지침서 같은 거였으니까. 애들이 떠나기 전에 이 〈용서하시라〉시 읊으면서 부모님, 선생님들한테 반성도 하고, 반친구들도 다 울고, 울음바다 되고 했죠.

실제로 1997년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서는 〈글쓰기와 다듬기〉라는 제목의 읽기 교재로 김철의 시 〈용서하시라〉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26) 〈글쓰기와 다듬기〉 “글쓰기란... 글의 알맹이인 종자와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야기를 곧바로 떠나가는 것이다. 글의 내용다듬기에서는 이야기하려는 문제가 명백하고 보여주려는 사상이 뚜렷한가, 제목과 내용이 맞는가, 꾸미거나 과장한것은 없는가, 불필요한것은 없는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국어 고등중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21쪽.)

연구대상자 F(이하 F씨)는 고등중학교 시절 음악소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용서하시라〉 사랑 〈어머니〉 시는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외웠었죠. 누가 토씨하나 안 빼먹고 다 외우는 거가 중요했죠. 근데 우리 음악소조에서는 누가 더 감동적으로 잘 읊느냐가 중요해서 정말 그거를 잘 읊는 친구들을 보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랬죠. 충성의 노래모임 때 〈용서하시라〉 시를 정말 잘 읊어서 선생님들, 학생들 다 울리고 한 친구도 있었어요.

한편, 연구자는 김철의 시가 나왔던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4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북한에서 그때처럼 이 시를 주입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슬로건인 ‘인민대중제일주의’²⁷⁾에 걸맞게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서 당을 찬양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세뇌시켰던 것에 비해 현재는 ‘인민대중’이나 ‘인민사랑’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노래’나 ‘시’어들로 주민들을 교양하고 당에 충성하도록 세뇌시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이 시에 대한 북한당국의 집착을 1990년대 장마당세대인 연구대상자 G씨와 H씨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 G(이하 G씨)는 북한에서 수재들만 선발하는 제1고등학교 출신으로 이 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²⁷⁾ 김정은은 2013년 2월 열린 조선노동당 제4차 전당당세포비서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후 김정은의 인민사랑과 인민을 위한 정치를 찬양하였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 금의 재부도 지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근본 핵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해 왔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했다.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1), 135~425쪽.)

〈어머니〉시, 〈용서하시라〉시는 우리 1고등 3학년 때 문학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문학 선생님이 너무 깐깐하게 막 무조건 외우라고 강요해서 엄청 외워서 전문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중요한 행사 같은 거 할 때마다 노래 준비하면서 〈어머니〉시랑 〈용서하시라〉시도 같이 준비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2011년 북한의 평안북도 구성시 새날중학교에서는 졸업생들의 군입대를 축하하여 예술소품무대에 시 〈용서하시라〉를 준비하였음을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²⁸⁾

한편, 연구대상자 H(이하 H씨)씨도 마찬가지로 이 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G씨와 달리 '소학교' 때부터 배웠다고 증언하였다.

〈어머니〉시랑 〈용서하시라〉시는 하도 학교에서 달달 외워가지고 저 거의 다 기억나요. 아마도 소학교 3학년 때 인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잘 외워오지 않는 애들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아예 외우는 시간을 따로 줘요. 그러면 몇 시간씩 외우고 선생님이 한 명씩 일으켜 세워서 외운 거 검사하고, 못 외우면 망신당하니까 정말 억지로라도 달달 외웠었죠. 근데 나중에는 북한에서는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시나 〈용서하시라〉시를 개사해서 '어머니 당', '조국' 같은 단어는 짝 다 빼고 어머니 생일이나 선생님 생일 때는 이 개사한 노래랑 시를 불렀어요. 오락회 때도 그렇게 불렀고 남자애들 군대 갈 때도 감사한 표현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북한당국이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복잡군중도 '어머니 당'의

²⁸⁾ 교직원들과 전체 졸업생들이 출연하는 예술소품무대에서 노래 〈동무들이 군대로 가자〉, 시 〈어머니의 당부〉, 〈용서하시라〉를 비롯한 예술소품들은 조국보위열의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는 이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신문』 2011년 5월 17일.)

품으로 모두 끌어안아 차별 없이 보살피주면서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김일성·김정일로 상징되는 ‘조선노동당’임을 세뇌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 충성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주민들은 이 시를 읊으면서 ‘어머니 당’이라는 존재에 대해 나를 낳아준 어머니보다 더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도록 철저히 세뇌당하였음을 증언하였다.

연구대상자 9명에게 당시 이 시를 읊으면서 ‘어머니 당’에 진심으로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1990년대 장마당 세대인 G씨와 H씨를 제외한 연구대상자 7명은 “당시에는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읊으면서 당에 진심으로 충성하였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인 A씨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어머니 당’, ‘어머니 조국’하면서 충성한 사람들이 많았다. 배고파 굶어 죽으면서도 그것이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중간단위간부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보와 인터넷의 차단, 어릴 때부터의 세뇌교육이 북한사람들을 무지와 몽매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증언하였다. B씨는 “당시에는 김일성과 북한체제에 대해서 수령으로서 인민을 위한 최고의 령도자라고 믿었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였다. C씨는 “북한이 〈어머니〉시 〈용서하시라〉시와 같은 혁명적인 시나 노래들을 엄청나게 보급하고 주입 시키니까 정말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진짜 ‘혁명적’으로 무장됐었다.”라고 증언하였다. D씨는 “그 당시에는 진짜로 당을 내 친어머니보다 더 존중했다. 예를 들면 2월 16일 김정일 탄생 명절에 학교나 동상에 꽃다발 드리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한 달 전부터 산에 가서 진달래 꺾어다가 온돌 아랫목 제일 따뜻한 곳에 이불 씌워서 두고 어머니도 못 누우시게 하고 그 꽃을 정성 들여

물주고 한 달 넘게 키워서 피워가지고 동상에 증정하고, 추운 겨울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서 손발 꽁꽁 얼면서 동상 닦고, 실제 내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했다. 아무튼 어머니 당이 바라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F씨는 “학교 때는 학교에서 유리 내라고 하니까 식장유리 빼다 바쳤고, 군대 가서는 당원이 되기 위해 허약(영양실조)걸리고, 결핵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가도 죽기를 각오하면서 군대에 남아서 버티고, 그러다가 많은 친구들이 죽어나가고 했던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진짜 바보 같지만, 그때는 그것이 진심이었다.”라고 증언했다.

결과적으로 시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나를 낳아준 어머니한테도 하지 못했던 충성을 '어머니 당'에 무조건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 즉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써 김일성·김정일과 '어머니 당'에 진심으로 충성하도록 하는 데 성공적인 나팔수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당국이 북한주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정서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효과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은 '어머니 당'에 절대적이고 무한한 신뢰를 가지면서 철저히 세뇌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V.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의 한계

이 장에서는 1990년대 장마당세대와 그 이전 세대가 '어머니 당'을 생각하는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즉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의 한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북한에서 진심으로 '어머니 당'에 충성했던 지난날들에 대한 소감은 어

떠어나는 연구자의 질문에 B씨는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들으면서도 천지 분간을 할 수 없는 뇌 없는 인간에 불과했던 거였다.”라고 증언하였다. D씨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원이 되는 것에 목숨을 내 댈어야 되고,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격스럽게 생각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참 황당하게 생각된다. 어떻게 내 어머니를 당과 비교할 수 있는지, 북한에서 당은 우리에게 상처만 줬는데, 내 어머니는 사랑을 준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어머니가 아깝다.”라고 증언했다. E씨는 “탈북해서 중국에서 북송만 세 번 당하고 함흥교화소에서 3년 동안 춥고, 배고프고 매 맞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당하던 치욕적인 그때를 생각하면 분통이 치밀어 올라서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화를 식힌다. 그 낭비된 몇 년의 시간을 한국에 일찍 와서 자기 계발에 매진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엄청 더 성장했을 것 같다. 거기서 낭비된 내 청춘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강변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도 동요하는 민심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영화 ‘보증’이나 과거에 거대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주입·보급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난 1990년대의 장마당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에게는 더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 그랬던 것처럼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준 당의 고마움에 충성하도록 이런 영화들과 시들을 계속해서 재활용하고 있지만 이제 그 효과는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효용성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G씨의 경우에는 〈어머니〉 시나 〈용서하시라〉 시를 배우고 외우면서 그 당시에 당을 진심으로 ‘어머니 당’이라고 생각했다는 연구자의 질문에 “어머니 당이 주민들에게 배급이나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문제가 벌어지면 거짓말로 막으려는 것 같아서 어머니 당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H씨도 같은 질문에 “한 절반 정도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경제생활이 어려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산과 길주를 오가는 장거리 장사를 하였는데, 차표 살 돈이 없어 열차 승강기 발판에 몰래 몸을 숨겨서 타고, 정전된 열차가 몇 날 며칠 움직이지 않아 온몸에 동상을 입으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무슨 죄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서로 우는 흉내를 내느라고 힘들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전문학교 다닐 때는 반 친구들과 함께 김정일 체제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스스로없이 하였다. 북한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다 체제가 잘못된 것이고 이제 북한도 능력의 한계가 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를 성인뿐만 아니라 5살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주입시키고 있다. 김철의 시 〈어머니〉와 비슷한 시기인 1980년대 초반에 제작된 북한 동요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²⁹⁾가 연구자가 유치원 시절부터 매일매일 불렀던 북한 어린이들의 인기 노래였는데, 4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김정은의 사랑을 받으며 북한 사회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의해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이 '어머니 당'이라는 매커니즘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집착과 불안한 심정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이에 탈북민 출신의 작가&칼럼리스트 림일은 “인민의 아버지인 수령은 곧 당, 그것도 어머니 당이고 인민이 사는 집은 당의 품이라는 진짜 어리둥절한 소리”³⁰⁾ 라고 일침하고 있다.

29)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다섯 살 난 내 동생 옥이가 / 문득 영똥하게 물어 보겠조 / 언니야 당이란 무슨 말이나 / [...]당이란 아버지 원수님(김일성) / 당이란 지도자 선생님(김정일)이죠) 『유튜브』 (온라인), 2019년 10월 12일, <<https://www.youtube.com/watch?v=XwfUQyUADmw>>.

30) 림일, 「사상 첫 탈북정당 '남북통일당」 『통일신문』 (온라인), 2020년 3월 19일, <<https://www.unityinfo.co.kr/31303>>.

결론적으로 김철의 시 〈어머니〉나 〈용서하시라〉는 처음 발표되었던 198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19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 때처럼 열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을 어머니 그 이상으로 인식시키는데 정치·사상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세뇌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몇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고³¹⁾, 계속해서 탈북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공개처형, 교화소, 노동단련대와 같은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북한당국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가중된 것이다. 아무리 강요를 수반한 세뇌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사상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당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침투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가져왔다.

결국 북한이 몇십 년 동안 공들여 당에 진심으로 충성하도록 세뇌시켜 놓았던 북한주민들도 궁극에는 굶주림이란 생존 앞에, 독재체제의 거짓과 공포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 앞에 그 지옥을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북한을 탈출한 이탈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거짓된 진상을 알리는 통일 전도사로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거스르는 굶주림, 천부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억압에 대한 분노 앞에는 몇십 년의 공든 세뇌교육도 무용지물이 되어 효과는 갈수록 약화되고 그 효용성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다.

31) 황장엽에 따르면, '95년에는 당원 5만 명을 포함하여 50만 명이 이미 굶어죽었고, '96년에는 11월 중순 현재 이미 100만 명이 굶어죽었다. 그리고 '97년과 '98년에도 각각 적어도 100만 명쯤은 굶어죽은 것으로 생각된다. (황장엽 회고록, 「대량아사와 전쟁준비」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9), 305쪽.)

V. 결론

지금까지 조선예술영화 '보증'에 삽입된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Ⅱ장에서는 이 시가 삽입된 북한 영화 '보증'과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의 내용과 줄거리 그리고 영화와 시에 대한 북한의 평가 등도 함께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는 영화 '보증'에 대해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준 특출한 성과작으로, 우리 당 군중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인한 혁명적 작품으로 평가"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상을 수여할 정도로 북한의 문화예술 부분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의 상을 주면서 아낌없는 극찬을 하였음을 알아보았다. 또 김일성상(賞)계관시인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에 대해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직접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극찬한 부분도 함께 다루어보았다.

Ⅲ장에서는 북한이 '어머니 당'에 대한 세뇌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그와 연관된 '어머니 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Ⅳ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기억하는 조선예술영화 '보증'에 삽입된 김철의 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를 통해 북한당국이 이 시를 북한 전역에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머니 당'에 대한 충성심을 극대화시킨 세뇌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9명의 인터뷰이 중에 1990년대 장마당 세대인 G씨를 제외한 8명의 탈북민들은 시의 80%이상을 암기하고 있었으며 이 시를 읊으면서 '어머니 당'에 진심으로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연구

자의 질문에 G씨와 H씨를 제외한 7명의 탈북민들은 “당시에는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읊으면서 당에 진심으로 충성하였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이 시는 당시의 북한 주민들을 당에 충성하도록, 당을 진정한 ‘어머니 당’으로 인식시키는데 혁명적 나팔수 및 조력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당에 대한 충성심 고양 강화 정책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장마당세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장마당 세대인 G씨와 H씨는 연구자의 같은 질문에 “어머니 당이 주민들에게 배급이나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문제가 벌어지면 거짓말로 막으려는 것 같아서 어머니 당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 절반 정도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머니 당’에 대한 믿음과 충정으로 헌신하였던 북한주민들도 굶주림과 억압 앞에 믿음과 헌신을 반납하였으며 현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인권 투사들로 변신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계속해서 영화 ‘보증’이나 김철의 시 〈어머니〉, 〈용서하시라〉를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효용성은 잃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에게 주는 메시지는 체제 유지 및 독점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핵무기개발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이반되는 민심 상실에 대한 두려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어 고등중학교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국어문학학습참고자료집』,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7.
 김철시집, 『어머니』, 평양: 문예출판사, 1989.
 『김철작품집(상)』,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문학작품분석』,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2012.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1.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0.
 『조선로동당력사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8.
 『조선문학예술년감』,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조선중앙년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김진철, 「북한의 사회불평등 구조화 요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안지영·김화순, 「배제와 포용-북한영화 및 드라마를 통해 본 '복잡군중'정책」 『북한』 제72권 72호, 2020, 87~131쪽.
 전영선, 「현역 북한 최고의 시인(김일성상계관시인)-김철,오영재」 『북한』, 2002년 3월호(통권제363호), 136~145쪽.
 황장엽 회고록, 「대량아사와 전쟁준비」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9, 305쪽.

『노동신문』 2011년 5월 17일.
 『노동신문』 2014년 6월 9일.
 『민주조선』 2009년 10월 8일.

본사기자, 「영원한 어머니」 『천리마』 제6호, 2008, 4쪽.
 방철림, 「〈애국의 열정을 북돋아주는 투쟁의 기치〉 서정시 〈용서하시라〉를 두고」 『조선예술』 제3호, 2007, 2쪽.
 윤성옥, 「위대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 『문화어학습』 제3호, 1993, 3쪽.

어은심, 「조국수호정신이 충만된 시 〈용서하시라〉의 언어형상에 대하여」 『문화어 학습』 제1호, 2007, 1쪽.

최철진, 「〈평론〉 영화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데서 시의 역할」 『조선예술』 제1호, 2007, 1~3쪽.

「北에선 남흥화학 공장출신들이 출세한다.」 『연합뉴스』 (온라인), 2013년 6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30620201100014>>.

「조선예술영화 ‘보증’ 제1, 2부.」 『유튜브』 (온라인), 2020년 8월 27일 <<https://www.youtube.com/watch?v=E1NY1xNNL7>>.

「사망한 北 최고시인 김철의 ‘끝내 이뤄진 사랑’」 『DAILYNK』 (온라인), 2008년 4월 4일, <<https://www.dailynk.com/%EC%82%AC%EB%A7%9D%ED%95%9C-%E5%8C%97-%EC%B5%9C%EA%B3%A0%EC%8B%9C%EC%9D%B8-%EA%B9%80%EC%B2%A0%EC%9D%98-%EB%81%9D%EB%82%B4-%EC%9D%B4/>>.

「조선가요, 용서하시라」 『유튜브』 (온라인), 2022년 3월 17일, <<https://www.youtube.com/watch?v=nmQ9yYbWUvo>>.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 『유튜브』 (온라인), 2019년 10월 12일, <<https://www.youtube.com/watch?v=XwfUQyUADmw>>.

림일, 「사상 첫 탈북정당 ‘남북통일당」 『통일신문』 (온라인), 2020년 3월 19일, <<https://www.unityinfo.co.kr/31303>>.

Brainwashing effects and limitations
on North Korea's 'Mother Party'
: Focusing on Kim Il sung's poems <Mother> and <Forgive>
by Kim Chul, a poet in the Joseon art film 'Guarantee'

Kim, GyuLee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the brainwashing effects and limitations of North Korea's "Mother Party" were investigated through testimony from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Kim Chul's poems "Mother" and "Forgive" inserted in the Joseon art film "Guarantee." Of the nine North Korean defe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eight, excluding one from the Jangmadang generation, memorized more than 80% of the poem. When asked by the researcher whether he or she thought of being truly loyal to the Mother Party while reciting the poem, seven participants, excluding G and H who were the Jangmadang generation in the 1990s, testified, "At that time, I was truly loyal to the party and supposed it was natural to think so." However, G and H, the Jangmadang generation, responded to the same question that, "I didn't think the Mother Party was 100% right."

Through the Joseon art film "Guarantee", which caused a great sensation in North Korean society during the 1980s and 1990s, and the poems "Mother" and "Forgive" inserted in the film, North Korea strives to induce system solidification, even reusing them through the Kim Jong-un period, but is now facing limitations that it is losing its effectiveness.

Keywords: Jang-gu, Kim Cheol, Poetry 〈Mother〉, 〈Forgive〉, Mother Party, brainwashing effect, North Korean, North Korean defectors

김규리 (Kim, GyuLee)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북한이탈주민으로 2008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연구원과정, 제주도청에서 북한이탈주민·이북5도민 담당 주무관을 거쳐 현재는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의 겸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한반도의 인권·평화, 남북통합문화, 통일교육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